

중국 신문학 초기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수용

- 루쉰(魯迅)과 귀모뤄(郭沫若)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론 수용을 중심으로

고 혜 경
(세종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지그문트 프로이드¹⁾는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로서 심리학 및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범죄학 및 문예비평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이드 이론의 중심 내용은 인간의 심리활동 중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무의식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가정은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적 동기로 요약될 수 있다. 프로이드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정신결정론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 감정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 이를 우연적 사고나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에 행동의 근원적 원인을 밝혀내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무의식이라는 인간정신의 심층구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성적 본능의 지배 하에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인간의 변태적 심리나 꿈 등의 심리현상 내지는 인류사회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1) Sigmund Freud, 1856-1939.

이러한 무의식 이론을 바탕으로 히스테리 환자에게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히스테리를 치료하고,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 행동의 이해와 정신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반면에 비평가들도 적지 않았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을 문예창작에까지 끌어들이며 인간의 내면심리를 논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문예창작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고, 인간의 내면심리를 재조명하고자 했던 문예가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으로부터 자연과학의 도움을 얻어내어, 창작과 비평에 각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문학과 심리학은 점차 경계를 좁혀갔고, 정신분석학은 문학창작의 결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심리분석소설’과 ‘심리분석 문학비평’ 탄생의 계기로까지 이어졌다.²⁾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20세기 초 많은 서구사상과 함께 중국에 흘러들어와 5.4이후의 중국문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화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앞 다투어 프로이드의 저서를 번역하였고,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에 그의 사상을 활발히 운용하였다. 프로이드 이론이 중국에 전파될 수 있었던 추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해방문제에서 제기된 성도덕과 윤리적 논의 그리고 심리학의 탄생과 발전이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문예계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주로 이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운용하는 방식과 프로이드 저서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 전자는 주로 작가와 문예 이론가들이 몸소 프로이드 사상을 접한 후 문예이론이나 문예창작을 통해 중국의 위선군자와 봉건제도를 계몽시키고자 하는 무기로 삼았다. 비교적 일찍 프로이드 사상을 접하고 수용한 저우쥘런(周作人)과 루쓌(魯訊), 귀모뤄(郭沫若), 그리고 프로이드이론 비평의 대가 주광치엔(朱光潛)과 판광뎬(潘光旦)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루쓌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구리야카와 하쿠손(厨川白村)의 저서 『고민의 상징

2) 里恩·艾德爾, 『文學與心理學』, 北京大學出版社, 1982, 76쪽 참조

『苦悶的象徵』을 번역하였고, 문학창작 안에서도 프로이트의 부분적 이론을 반영하였다. 귀모뤄는 『비평과 꿈(批評與夢)』을 비롯한 여러 글들에서 직접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위다푸(郁達夫), 선충원(沈從文) 등 다수의 신문학 작가의 작품 속에서도 프로이트의 흔적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론(精神分析引論)』³⁾ 등 프로이트 저서의 번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까오쥐에푸(高覺敷)와 쟡스자오(章士釗)의 프로이트의 자전 번역⁴⁾ 등 번역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⁵⁾ 당시 중국문단의 이러한 ‘프로이트 열풍’은 중국 신문학과 프로이트의 불가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신문학 문단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리얼리즘에서부터 낭만주의, 그리고 모더니즘 등 여러 문학사조에서도 프로이트의 그림자는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은 5.4 이후 중국 신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사조인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각각 대표하면서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을 받은 두 작가 루쉰과 귀모뤄를 중심으로 중국 신문학이 수용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쉰과 귀모뤄의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수용을 중점 분석함으로써 정신분석학이 중국신문학에 끼친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함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로 루쉰과 귀모뤄가 소개한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에 관한 글들을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5.4 시기 이후 루쉰과 귀모뤄를 중심으로 한 신문학작가들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이에 대한 그들의 유사성과 차별성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3) 『精神分析引論』, 『精神分析引論新編』은 까오쥐에푸(高覺敷)가 각각 1930년,과 1935년에 번역한 저서로, 프로이트의 전후기 사상을 대표하는 저서이다.

4) 『弗羅乙德傳』, 商務印書館, 1936.

5) 프로이트 저서에 관한 번역서는 이외에도 루신위엔(盧心元)의 『精神分析學批評』 등이 있다.

II. 풀어놓은 글

1. 프로이드와 루쉰의 리얼리즘

신문학 초기 루쉰은 프로이드 이론을 완전히 섭렵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영향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의 구리야카와 하쿠손(厨川白村)의 저서를 번역하면서부터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곧 이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펼치기에 이른다. 그는 당시 서방에서 밀려들어온 사상철학을 내 것으로 운용하는 ‘가져오기(拿来)’⁶⁾ 방식과 철저한 리얼리즘 정신에 기초하여, 사회현실을 변혁시키고자 하였던 자신의 창작에 적극 실천하였다.

루쉰은 일본 유학시절 의학을 공부하였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정신분석이론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역시 당시 봉건예교의 피해자였던 한 사람으로, 연애와 결혼문제에 있어서 낡은 사회와 낡은 전통을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추구가 절실하였던 터라, 1922년 이를 곧 자신의 창작실천에 옮기며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롭고도 낯선 이론에 대해 시험하고자 하였다. 『補天』은 여와가 돌을 구워 하늘을 메운다는 「女媧煇石補天」 신화를 소재로 한 단편으로 그는 창작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로이드 학설을 통해 ‘인간과 문학’의 기원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⁷⁾, “성의 원천과 창조, 소멸에 이르기까지를 묘사하고 있다.”⁸⁾

구리야카와 하쿠손은 192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이론가로, 주요 저서 『고민의 상징(苦悶的象徵)』은 1924년 루쉰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었다. 이 저서는 프랑스 베르그송의 생명철학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문예에 적용한 것으로, 억압된 생명력으로 인해 생겨난 고민과 번뇌가 바로 문예의 뿌리라는 견해가 이론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구리야카와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빌어 생명력의 근원지를 찾고자 하다가 인간의 고민과 번뇌를 간파할 수 없었다. 프로이드가 지적한 ‘불안감’은 현실의 생활고와 번뇌가 인간을 억압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구리야카와는 ‘생명력’에 대한 자신만의

6) 홍석표, 『현대중국 단절과 연속』, 선학사, 2005, 215쪽 참조.

7) 「古事新編·序言」, 『魯迅全集』第2卷, 人民文學出版社, 1991, 341쪽.

8) 「南腔北調集·我怎麼做起小說來」, 『魯迅全集』第4卷, 513쪽.

확실한 개념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모든 것이 ‘성의 갈망’으로 귀결되는 그의 편견은 사물을 부분적인 단면만을 보는 과학자적인 버릇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⁹⁾ 이 말은 구리야카와가 프로이트의 과도하게 주장하는 성욕과 또 생명력을 그저 성욕에만 귀결시킨다는 편견을 부정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루선의 프로이트에 대한 이해는 구리야카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는 『고민의 상징』의 서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작가는 베르그송의 철학에 의거하여 끊임없는 생명력을 인류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또 프로이트의 철학에서 생명력의 뿌리를 찾아내어 이를 문예, 특히 문학을 해석하는데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학설과는 다른 점은 프로이트는 생명력의 근원을 성욕에 두었지만, 작가는 생명력 자체의 돌진력과 도약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여타의 저서들 중 과학자 같이 독단적이고 철학자같이 허황됨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학론가의 복잡함이나 장황함도 찾아볼 수 없다. 작가 자신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일종의 창작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문예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견해와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었다.¹⁰⁾

루선은 구리야카와가 정신분석에서 고수하고 있는 비판적인 태도에 동의하였다. 모든 것은 성욕에 귀결된다는 프로이트의 독단성을 부정하는 한편, 그 중 긍정적인 요소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문예에 독자적인 견해를 구축하였다. 구리야카와의 프로이트에 대한 견해는 당시 루선의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선은 이후에도 이러한 프로이트의 논리를 극단적인 편견과 집요함이라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게재하였다. 『고민의 상징』을 번역하던 이듬 해, 그는 『시가의 적(詩歌之敵)』에서 정신분석학과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성의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드, 자아, 초자아의 층들을 작품분석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루선은 프로이트의 범성욕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며 마르

9) 「引言·苦悶의象徵」, 『魯迅全集』第10卷, 232쪽

10) 위의 책과 같음

크스주의사상을 무기로 정신분석학의 유심주의적 면모를 철저하게 비판하기에 이른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대해 비교적 심도 있는 비판을 하였지만, 루선은 이 이론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실사구시의 입장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여 현실을 개혁하고 사회문제를 파헤치는데 운용하였다. 루선 역시 문예이론이라는 틀 안에서 프로이드이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로이드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은 가볍게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승화작용’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와 『문명 속의 불만』에서 문명의 발달과 개개인의 창조적 역할은 리비도의 억압으로 인한 승화라는 ‘승화작용’이론을 언급하였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려는 방법이나 욕구도 또 무의식 부분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억압된 리비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신 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루선은 성욕의 승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문예를 ‘국민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인은 너무 행복해서도 안되고 너무 만족해도 좋은 시를 쓸 수 없다고 여겼다.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각종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러한 모순들은 번뇌를 만들어 내게 되니 번뇌가 있으면 자연히 번뇌를 없애고자하는 여러 소망들도 생겨나게 되므로, 문학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불평이나 답답함을 토로하여 자신의 소망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승화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소망은 성욕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이라 하였다.¹¹⁾

문예작품을 평론할 때도 루선은 프로이드 성욕이론의 일정한 관점은 받아들였다. 그는 성욕은 동물적인 욕망이 아니며 연애의 기본 조건임을 분명히 하였고, 더 나아가 연애는 정신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체임을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아나톨 프랑스¹²⁾의 영혼과 육체의 충돌을 묘사한 소설 『타이

11) 「詩歌之敵」, 『魯迅全集』 第7卷, 236-237쪽 참고

12) (Jacques-Anatole Francois Thibault 1844-1924),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겸 평론가로 계몽사상으로 비롯된 합리주의와 지적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사회비판적인 작품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소설 『실베스트르 보나르의 죄』, 『타이스』, 『붉은 백합』 등으로 명성을 떨쳤다. 1921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1922년 그의 모든 작품들은

스』¹³⁾를 극찬하며, 『타이스』의 구상 중 많은 부분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응용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¹⁴⁾“나의 관심은 향연의 광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내심과 고통에 있을 뿐이다. 프랑스가 아니었다면 정말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¹⁵⁾ 『타이스』는 성욕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성욕을 억압하고 인성을 말살시키는 봉건적 금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루선이 『타이스』를 인정한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프로이트의 성욕이론의 일정한 관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선의 문학관은 리얼리즘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현실을 정시한다는 것, 어두운 사회의 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아Q정전(阿Q正傳)』을 거쳐 『방황(彷徨)』에 이르는 루선적 리얼리즘의 근본정신이다. “가면을 벗기고 진실되고, 그리고 심각하고 대담하게 인생을 직시하고 그것의 피와 살을 그려내야 한다.”¹⁶⁾라는 루선의 말은 루선의 리얼리즘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루선은 자신의 철저한 리얼리즘 문학관을 근간으로 정신분석이론을 소설 속에 침착하여 인물의 묘사와 현실반영을 심화시켰다. 『광인일기(狂人日記)』는 광인의 병적인 망상과 착각, 그리고 환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정신 착란자 광인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식인(吃人)’에 대한 공포심리를 그려내었다. 프로이트가 밝혀낸 무의식은 우리가 일부러 인식하려 해도 자각할 수 없는 잠재된 내면으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욕구나 본능, 환상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은 부분이나, 과거의 상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금서 목록에 올랐다. 이 조치는 이후 1966년에서야 해제되었다.
13) 1890년에 간행되었으며, 4세기경 원시 그리스도교가 번창했을 무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방대한 무희 타이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막의 금욕수사 파프누스는 그녀를 교화한다. 그 감화로 타이스는 점차 순화되어 가지만 반면, 파프누스는 타이스의 육체적 매력에 유혹되어 어떠한 고행도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명상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곡가 쥘 마스네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4) 「且介亭雜文二集·‘京派’和‘海派’」, 『魯迅全集』第6卷, 304쪽.

15) 위의 책과 같음.

16) 「論爭了眼看」, 『魯迅全集』第1卷, 332쪽.

17) 전형준,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 창작과 비평사, 1997, 117쪽 참조

트라우마 등도 포함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욕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적 부분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넘어와서 표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프로이드는 이것을 인간은 생명에 대한 근원적 욕망이 억압되면 정신병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설 속의 광인이야말로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잘 대변하는 인물이다. ‘식인’의 공포로 받아들여진 봉건사회는 광인의 억압된 무의식 속에서 환상과 망상으로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루선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는 중국의 봉건예교와 가족제도를 지탱하는 유교의 위선과 비인간성을 말하고 있다. 『이혼(離婚)』에서는 봉건제도의 관습과 억압을 아이꾸라는 여성이 이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결혼의 신성한 서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도, 남자라는 직위로 우월한 위치에서서, 본부인인 자신까지도 일방적으로 내치는 상황에 대해 아이꾸는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자리를 지켜온 봉건의 위압은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원인모를 불안감을 만들어 낸다. 프로이드이론에 의하면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그리고 외부 환경 사이에서 각각의 요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아의 힘이 약해지거나 다른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자아는 위협 신호로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¹⁸⁾ 아이꾸가 느끼는 원인모를 불안감은 외부환경의 실제적 위협에 따른 현실적 불안에서 기인한 것으로, 루선은 아이꾸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는 불안함으로 각인되는 심리묘사를 통해 중국에 뿌리박힌 봉건주의의 악습과 폭력이 중국의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꾸의 심리묘사는 문학이 사회적 내용을 담은 무의식 심리를 표현해낸 정신분석이론을 응용한 리얼리즘 창작의 대표적인 범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까오선생(高老夫子)』의 까오선생과 『비누(肥皂)』의 쓰밍은 입으로만 사회의 도덕을 외치는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 속에 루선은 봉건사회에 억압되고 잠재된 성

18) 또 프로이드는 자아의 불안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외부환경의 실제적 위협에 따른 현실 불안, 이드의 욕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마치 끊는 주전자의 뚜껑을 닫음으로써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드의 욕구가 의식적으로 침범하려고 할 때 느끼는 신경증적 불안, 초자아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는 도덕적 불안이 그것이다.

욕을 담아냈다. 루쉰은 의식의 억압과 꿈의 무의식을 도입시켜 여학교의 교사가 된 까오선생의 음흉한 심리와 거지 소녀에게 음욕을 품는 쓰밍의 허위 의식을 고발하고 있다. 『비누(肥皂)』 쓰밍은 거지에게서 ‘비누’를 사는데, 이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거지 소녀의 효행에 감동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는 소녀에게서 성적 자극을 받는다. 음욕은 유교를 숭상하는 쓰밍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억압된 욕구를 발산시키는 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쓰밍은 자신의 이런 추악한 심리를 아내에게 들키자 이를 아이에 대한 성 학대로 표출시키고, 또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밤중에 억압된 욕구를 이완시키는 행동으로 천박하고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자신의 변태적 성적욕구를 만족시킨다. 프로이트 견해에 따르면 자아는 내면에서 발생하는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방어 기제(defense mechanism)를 사용하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다양한 방어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분석에서 가장 먼저 연구된 방어 기제로서 다른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되는 ‘억압’은 수용하기 힘든 충동이나 기억, 정서 등을 의식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억압의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며, 억압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억압을 하는 자아의 활동 또한 의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프로이트는 방어 기제는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되면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주로 억압된 성욕의 표출로 여러 변태심리나 기형적인 심리변화를 일컫는다고 설명한다. 까오선생과 쓰밍과의 위선적인 도덕군자의 모습은 바로 봉건사회로부터 억압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신을 억제한 결과임을 루쉰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심리분석의 방법을 빌어 쓰밍의 억압된 성욕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위선적인 군자의 심리 과정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사회적 도덕으로 감싼 거짓된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해내고 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프로이트선생이 ‘정신분석’을 선전한 후, 수많은 현인군자의 외투가 갈기갈기 찢겨졌다.”¹⁹⁾ 라는 루쉰의 말은 자신의 리얼리즘 창작 속에 받아들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속에 사회적 함의가 충분히

19) 『華盖集·“碰壁”之余』, 『魯迅全集』第3卷, 117쪽.

내포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루쉰은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리얼리즘 문학정신이라는 기본 노선에는 동요되지 않았다. 정신분석이론의 긍정적인 요소는 루쉰에게 인물의 내면세계를 심도 있게 파헤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인물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작품의 사회적 의의와 중국인을 계몽시키는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였다.

루쉰의 잡문을 읽다보면 그가 운용한 프로이트학설의 흔적이 적지 않게 보인다. 특히 베이징 여자사범대학 사건²⁰⁾이 그러하다. 당시 베이징 여자사범대학 교장 양인위(楊蔭榆)에 대한 ‘과부주의(寡婦主義)’ 심리분석은 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루쉰에 의하면 양인위가 학생운동에 대한 진압을 결정한 것은 당연히 군벌정부의 교육당국의 입장에서였겠지만, 한 가지 목과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그녀의 독특한 개인적 심리요소가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인위는 서양유학파로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말끝마다 신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봉건적 압력으로 학생들을 억압하였다. 루쉰은 「과부주의(寡婦主義)」에서 그녀를 이렇게 꼬집었다.

여자의 경우, 남편이 있고, 애인이 있고, 아들딸이 있고,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곧 감추어져 있거나 결국 시들어버리거나 심지어 변태에 이르게 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부득이하게 독신생활을 했던 사람은 정신적인 변화를 면하기 어려워서 아 집스럽고 의심이 많으며 음흉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처지에 따라서 사상과 성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과부가 많고 있거나 과부에 기반한 학교에서는 정당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²¹⁾

그는 또 중세기 유럽의 성직자와 일본 유신 전의 궁녀, 그리고 중국 역대의 환관들을 예로 들며 그들의 잔인하고 교활함은 정상인의 몇 배를 능가한

20) 1924년 반동 성향의 학교 이사진이 개혁 성향의 학생 상당수를 퇴학시키자, 이에 반발하는 학내 투쟁이 지속되면서 결국 교육부에서 폐교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학생도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지지했던 루쉰은 결국 13년간 몸담았던 교육부에서 파면되고 말았다.

21) 「寡婦主義」, 『魯迅全集』 第1卷, 264, 266쪽.

다고도 지적하였다.

다른 독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심리도 변화무쌍하여 세간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사람들이 모두 혐오스럽게 느껴지며,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사람을 볼라치면 미움이 샘솟는다. 특히 이들은 성욕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성에 관련된 사건에 매우 민감하고, 편 집증적 이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권력에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사회로부터 억압되어 걸으려는 순결한척 해야 하지만, 내면에서는 본능의 마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만이 꿈틀대는 것이다.²²⁾

루쉰의 이러한 분석은 분명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양인위의 내면심리를 파헤치고자 하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많은 글들에서 터무니없이 성욕을 부정하는 유학자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927년에 쓴 「小雜感」에서는 “짧은 소매만 보면, 흰 팔을 떠올리고, 나체를 떠올리고, 생식기를 떠올리고, 성교를 떠올리고, 교배를 떠올리고, 사생아를 떠올린다. 중국인의 상상력은 오로지 이런 쪽으로만 트여있다.”²³⁾며 유학자들의 음란하면서도 위선적인 심리를 폭로하였다. 또한 루쉰은 위선군자의 허울을 간파하고 이를 비판하여 그들을 각성시키려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봉건의 견고함에 그는 쓴 소리를 내뱉으며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성해방과, 교육보급,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 교화시키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²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무의식 영역에 숨겨진 본능의 충동, 특히 성욕을 대담하게 드러낸 것으로, 루쉰은 이를 무기삼아 위선적인 도덕군자들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였다. 루쉰은 프로이트의 범성욕주의를 비판하긴 하였지만, 성욕을 부정하거나 혹은 성욕에 대한 언급을 꺼리지는 않았다. 그는 프로이트의 성욕 이론에 관해서는 범성욕주의 논리를 제외한 긍정적인 요소를 발췌

22) 위의 책, 264-265쪽.

23) 「小雜感」, 『魯迅全集』第3卷, 533쪽.

24) 「墳·堅壁清野主義」, 『魯迅全集』第1卷, 258쪽.

하여 봉건적인 위선군자들의 음흉한 변태심리를 해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루쉰의 리얼리즘 문학창작은 이렇게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과 그 영향에 서부터 비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겪어왔다. 루쉰은 중국과 중국인을 계몽 시키고자하는 자신의 리얼리즘 창작소신에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2. 프로이드와 귀모뤄의 낭만주의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귀모뤄는 루쉰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귀모뤄가 문단에 입성할 때, 수많은 외국작가의 작품이 모두 그의 시야 안에 있었다. 노신과 마찬가지로 의학을 공부하였던 그는 항상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관시키며, 자신이 배운 근대 의학, 특히 생물학의 지식으로 독자적인 문예이론의 기초를 닦았다.²⁵⁾ 귀모뤄는 이로써 자신의 문학창작실천과 이론에서 자연과학을 기초로 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충분히 운용하였다.

귀모뤄가 1918년 일본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 1923년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는 일본의 다이쇼시대였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말기까지는 일본 현대문학사상 가장 다채로웠던 시기로, 일본 현대문학의 발전은 외국문학을 열심히 학습해온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서방의 여러 창작유파, 낭만주의부터 상징주의, 심지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파까지 모두 일본 현대문학작품 속에서 표현되었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당시 일본의 많은 작가들에게 흥미를 가져다주었다. 모리 오가이(森鷗外)²⁶⁾는 자연주의를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비타 섹슈얼리즘(Vita sexualism)』이라는 가작을 남겼고, 자연주의를 포기한 유태주의 작가 사토 하루오(佐藤春夫)²⁷⁾는 자아의식을 운용한 정신분석으로 창작에 매

25) 「學生時代・創造10年續篇」, 『郭沫若全集』第12卷, 人民文學出版社, 1992, 234쪽 참조.

26) (1862-1922), 모리 오가이는 일본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소설가, 시인, 의사로, 제1차 세계대전이래, 나츠메 소세키와 나란히 문호라고 불렸다.

27) (1892-1964), 사토 하루오는 일본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스바르』지의 주요 집필자이다. 시인으로서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여 전통적인 시풍에 새로운

진하였다. 또 자연주의의 거장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²⁸⁾와 신사조파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²⁹⁾도 정신분석에서 출발하여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걸작들을 창출해냈다. 귀모뤄의 시를 극찬하였던³⁰⁾ 문학비평가 구리야카와는『고민의 상징』에서 정신분석학은 생명력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일종의 과학이라 분석하며 정신분석학 이론을 펼쳤는데, 이는 귀모뤄의 프로이트에 대한 흥미를 야기 시킨 것이기도 하다.³¹⁾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였던 귀모뤄는 다양한 일본문학의 새로운 작품들과 외국 문학 작품들을 독파하였다. 그는 일본 다이쇼 문단의 전성기를 따라 당시 일본문학계와 사상계의 흐름에 합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귀모뤄는 반년동안 휴학을 하고 1921년에 귀국하여 위다푸(郁達夫)등과 함께 창조사(創造社)를 결성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심리학계의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나타난데다가 또한 성(性)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설이었기 때문에 1920년대 중국사상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중국 내의 간행물에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많은 글들이 쏟아졌는데, 쟁뚱쑤(張東蓀)이 1920년 제5권 『民鐸』에 발표한 「정신분석을 논하다(論精神分析)」는 그 대표적인 글로 이듬해 5월 12일 상해의 『時事新報·學燈』에도 게재가 되었다. 구리야카와 「고민의 상징」의 창작론과 감상론은 『時事新報·學燈』에 먼저 번역되어 게재되었고, 이어서 루윈과 펑즈카이(豐子愷)의 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귀모뤄와 『時事新報·學燈』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이 글에서 간과할 수가 없다.

유럽의 낭만주의와 당시 전성기를 이루며 주관적인 자아를 묘사하는데 주력한 일본의 사소설(私小說)은 귀모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이

사상과 감정을 일으킨 1910년대의 으뜸가는 고전 서정 시인이 되었다.

28) (1879-1962), 마사무네 하쿠초는 일본의 소설가이자 평론가로 자연주의 문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9) (1892-1927), 제3-4차 『新思潮』의 동인으로 활약했으며, 인간의 추악한 본성의 근거를 응시하면서 『코』, 『감자죽』 등의 작품으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작품의 대부분은 근대의 정신분석적 프리즘을 통한 인간심리를 자세하게 분석한 것들로 모리 오가이에게 큰 문학적 영향을 주었다.

30) 「學生時代·創造十年」, 『郭沫若全集』第12卷, 79쪽 참조.

31) 「譯文序跋集·「苦悶的象徵」引言」, 『魯迅全集』第10卷, 231-232쪽 참고

시기 소설작품의 표현수법은 일본의 작가 자신의 문제를 작품 속 주인공에게 일체화 시킨 자연주의와 비교적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귀모뮈를 대표로 하는 창조사는 중국 현대문학 사단에서 낭만주의 특색을 지닌다. 낭만주의는 문예창작의 근거를 문학 예술가의 내재된 주관에 있다고 보고 창작의 직감이나 본능 등의 주관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부분은 낭만주의가 프로이드주의로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문예이론가 브란데스(Georg Brandes)³²⁾는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을 언급하며 “낭만주의는 문예에는 히스테리의 기도와 계략만이 녹아있다.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관계, 즉 사생활의 관계, 양성 간의 관계만 연구하는데 치중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경박한 병태적인 열정을 빙자하여 허풍을 떨뿐이다.”³³⁾ 라고 하였다. 브란데스가 언급한 낭만주의의 특징은 바로 정신분석학 작가들이 모두 간절히 바라는 것들로 양자간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문학평론가 트릴링(Lionel Trilling)³⁴⁾은 『프로이드와 문학』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드와 낭만주의 전통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의 최고 정점’이라 평했다.³⁵⁾

이러한 비판과 수용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프로이드 열풍’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귀모뮈는 일본을 통해 유럽의 낭만주의문학의 영향을 받아, 창조사의 낭만주의 대표적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자신의 창작실천과 이론실천에서 충분히 활용하였다.

귀모뮈는 『創造十年續篇』에서 정신분석이론 중의 ‘히스테리’의 원인은 억압받은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고, 프로이드가 요제프 브로이어³⁶⁾의

32) (1842-1927), 덴마크의 평론가로 총 6권으로 집필된 『19세기 문학의 주류』로써 문학이 사회와 인생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며,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유럽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창을 열었다.

33) 브란데스, 張道眞 역, 『十九世紀文學主流·德國浪漫主義』 제2권, 12쪽, 人民文學出版社, 1980년.

34) (1905-1975), 20세기 중엽 미국의 평론가로 저서 『매튜 아널드』(1939)는 심리학, 정치학 등의 이론을 도입한 역작이다.

35) 트릴링, 「弗洛伊德與文學」, 『文藝理論研究』, 1980년 第3期.

36) (Josef Breuer) 오스트리아 빈의 신경질환 전문의로 프로이드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를 공저했다. 브로이어는 프로이드에 앞서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술을 걸어

히스테리 환자로부터 힌트를 얻은 ‘굴뚝효과’, 즉, 최면술, 자유연상 등의 방법을 통한 ‘카타르시스(정화 작용)효과’만이 치료방법이라 여겼다. 카타르시스 효과는 인간의 정신내면에 억압되어진 관념이나 감정을 표출시킴에 따라 불안이나 긴장 등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귀모뤄는 민족이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문학가들은 그 답답함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말로 뱉어내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니 이것은 마치 연기로 굴뚝이 꽉 막혀 있는 것과도 같으며, 카타르시스 효과는 이러한 문학가들에게 자신의 상처받은 기억을 최대한 쏟아내게 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문예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여겼다.³⁷⁾

민족이 오랫동안 여러 억압에 시달리면, 그 상처들을 주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무의식 속에 억제시킨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게 만든다.³⁸⁾

청년기의 귀모뤄는 당시 많은 지식인들처럼 가슴 속에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가 쌓여 고통과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귀모뤄가 자신을 소재로 쓴 소설 『殘春』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소설 속의 허권위엔은 비범한 천재로 구국이상을 품고 병든 아버지를 뒤로하고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러나 그의 염세주의적 가치관은 정신이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만다. 작가가 직접적으로 허권위엔의 정신이상과 자살의 원인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살할 때 모자를 벗고 만세 삼창을 외치는 구절에서 이미 그가 격동적인 애국자라는 것을 소설은 암시하고 있다. 주인공의 정신이상 원인은 바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자, 구국이상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비극적인 인

잊혀져 가는 마음의 상처를 상기시키면 히스테리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후 프로이트와 공동으로 그 치유의 방법을 연구하고, ‘카타르시스법’을 확립하였다.

37) 「學生時代·創造十年」, 『郭沫若全集』第12卷, 79쪽 참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중, 작가의 작품으로의 발산이란 논리에서 귀모뤄의 ‘카타르시스 효과’에 대한 수용은 루선의 ‘승화작용’에 대한 수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8) 위의 책, 80쪽.

물에게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개인의 맺힌 응어리이자, 민족의 맺힌 응어리이다. 당시의 중국은 밖으로는 외세로부터 업신당하고, 안으로는 군벌세력의 혼전과 봉건세력의 핍박으로 인간의 개성이 철저히 억압받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연통 속에 연기가 꽉 막혀있는 것’과 같이 민족의 내면에 맺힌 응어리로 자리 잡아, 없앨 수도 뱉어낼 수도 없다면 죽음밖에 출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시에서도 묘사된 중국사회는 ‘비통함에 가득 차있는 감옥’이었고, ‘피고름으로 오염되어 있는 도축장’이었다.³⁹⁾ 5.4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 귀모뤄가 창작했던 시는 바로 이러한 ‘개인과 민족의 가슴 맺힌 응어리에 분화구와 분화의 방법을 찾아준 것’과도 같다.⁴⁰⁾ 「天狗」를 살펴보자.

나는 질주하네,
 나는 울부짖네,
 나는 타버리네,
 나는 사나운 불길처럼 활활 타버리네!
 나는 바다처럼 미친 듯이 울부짖네!
 나는 전기처럼 날쌔게 질주하네!
 :
 나의 나는 폭발하려하네!⁴¹⁾

이는 노신의 『狂人日記』 중의 광인과 함께 인간을 억압해온 사회에 대한 맺힌 응어리의 절규로, 인간을 억압하는 역사를 매듭짓고자 했던 투쟁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天狗』는 이러한 죄악에 휩싸인 전 사회를 모조리 삼켜버리고자 했으며, 전 사회를 삼켜버린 ‘나의 나’까지도 폭발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 시들은 철저한 반제, 반봉건 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이 가운데 충만된 암흑을 저주하고 광명을 부르는 시대정신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는 횃불,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전투의 나팔 소리

39) 「鳳凰涅槃」, 『郭沫若全集』 第1卷, 37쪽.

40) 「序我的詩」, 『郭沫若論創作』, 上海文藝出版社, 1983, 213쪽.

41) 「天狗」, 『郭沫若全集』 第1卷, 54-55쪽.

와도 같이 중국 국민들에게 하나의 분화구가 되어주고자 하였다. 귀모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시 「鳳凰涅槃」은 아라비아의 피닉스라는 신비로운 불사조에 대한 신화와 봉황새에 관한 중국 고대 신화에 기초한 것으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낭만주의적 필체로 중국 인민을 대신하여 지난날의 자신을 불사르고 더욱 충만한 오늘의 새 생명을 바꾸어 오는 숭고한 봉황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는 「女神之再生」에서도 애국주의와 반항, 분출과 창조 의 정신을 구가하였다. 이 시기에 귀모뤄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일본에 있었으나 마음은 늘 조국을 향해 있었으며 꿈에서라도 조국의 운명을 기원했다. 그는 군벌 혼전의 현실을 규탄하고 자신의 애국주의적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역사적 신화를 이용하여 극시를 썼던 것이다. 그의 시는 이렇게 중국 민족에게 ‘굴뚝효과’로 하나의 분화구가 되어 오랜 기간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와 고통을 씻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귀모뤄가 프로이트에게서 영향을 받은 ‘굴뚝효과’, 혹은 ‘카타르시스 효과’의 이론에는 양면성이 있다. 귀모뤄는 작가로서 사상면에서는 사회와 인민의 관계를 관철하였지만, 순수예술에 입각해서는 목적 없는 순수한 예술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문학창작에서 직감이나 영감의 작용과 감정의 ‘자연 순화’ 또한 강조하며, 시의 주요성분은 ‘자아표현’에 있다고 선언하고⁴²⁾, 또 외부에서 빌어 온 일체의 반사는 예술의 표현이 아니라고도 하였다⁴³⁾. 이 역시 물론 그의 개성해방에 대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1923년 『문예의 사회적 사명(文藝之社會的的使命)』에서 문예 자체는 목적이 없는 것이며, 단지 문예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문예의 결과는 예술자체와 효과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말한 ‘자아표현’과 프로이트의 ‘카타르시스 효과’이론의 영향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발산’은 귀모뤄가 생각하는 ‘자아표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자아표현’은 작가와 민족의 정서가 하나가 되는 억압 속에 맺혀진 응어리이자 분노이므로, 이것은 분명 암울한 사회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 담긴 궁

42) 「三葉集·致宗白華」, 『郭沫若全集』 第15卷, 18쪽.

43) 「文藝論集·文藝的生產過程」, 『郭沫若全集』 第15卷, 217쪽 참조.

정적인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귀모뤼는 문학의 사회성과 순수 예술성의 양자 간에서 고뇌하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자신의 낭만주의 문학 창작 속에서 적절히 융합시켜 나갔다.

귀모뤼는 문예는 작가 욕구의 ‘승화’라는 주장을 여러 번 펼쳤다. “나 귀모뤼가 신봉하는 문학의 정의는 ‘고민의 상징’이다.”⁴⁴⁾ 그는 문예창작을 자연현상의 발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진정한 문예는 순수한 정신에서 기인한 풍부한 경험이 작용하여 승화된 상징적인 세계라 여겼다.⁴⁵⁾ 소설 『LÖbenicht의塔』은 귀모뤼 자신이 인정한 프로이드의 ‘승화설’의 창작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소재인물로 삼아 프로이드 이론으로 주인공의 내면심리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칸트는 63세가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 칸트의 여성에 대한 숭배는 정신적으로 루소에 대한 숭배보다 못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모친을 가장 사랑한다. 하지만 그가 13살 때 모친은 일찍이 저세상으로 갔다. 60이 넘는 칸트는 지금도 일단 모친의 이야기만 꺼내면 눈물을 흘리곤 한다.⁴⁶⁾

칸트는 젊었을 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몇 번 가졌었지만, 가난으로 인해 결혼상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 후 그는 미친 듯이 학문에만 전념하며 『第一批判書』, 『第二批判書』를 펴내고 어느덧 대학자가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가끔 가슴 한 켠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치곤 하는데, 이것은 히스테리의 일종으로 그가 지켜보는 새소리에 짜증을 내는 것도 그 한 예일 것이다. 프로이드의 가장 큰 업적은 ‘무의식’의 발견이다. 프로이드는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을 심리적 외상 경험, 즉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라고 보았고, 이것은 보통 과거의 충격적 경험(트라우마)으로 대개는 성과 연관된 내밀한 것들이라고 보았다. 주인공

44) 郭沫若, 「暗無天日的世界」, 1923년 6월23일 『創造週報』7호. 이 글은 『郭沫若文集』 제10권에서는 “문학은 사회를 비판하는 무기이다(“文學是批判社會的武器”)

45) 「文藝論集」, 「西廂記」藝術上的批判與其作者的性恪, 『郭沫若全集』 第15卷 165쪽 참조.

46) 「LÖbenicht의塔」, 『郭沫若全集』 第9卷, 176쪽.

칸트의 이유 없이 솟구치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은 가난으로 좌절된 그의 사랑이 트라우마가 되어 히스테리의 증상으로 떠오르는 것임을 귀모뤼는 잘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은 창밖의 포플러나무가 눈에 아주 거슬려서 칸트는 하인에게 시켜 이웃더러 그 포플러 나무를 베어 버리도록 일렸다. 이웃집 여주인은 평소 칸트를 존중했던 터라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칸트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니 창밖의 시야를 가로막던 포플러 나무는 어느새 베어져 있었고, 창밖 저 너머로 뢰베르니히트의 탑이 시야에 들어왔다. 안팎으로 울타리를 없앤 칸트는 정신이 수정처럼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다시 집필에 전념하여 『第三批判書』를 완성하였다.⁴⁷⁾ 이 작품은 문화생성과 성의 관계가 ‘승화’작용의 결과임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묘사하고 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방어 기제의 하나로 ‘승화’(sublimation)는 본래의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차적인 과정(대체과정⁴⁸⁾)을 통해 대리적인 활동은 본래의 충동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원시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동기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동기나 욕구로 대체시키거나 발전시키려는 자아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귀모뤼는 이 소설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사회적 성공으로 이끈 ‘승화’의 묘사를 통해 프로이트의 ‘억압과 승화’ 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고, 실제로도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작품 속 인물의 내면심리를 깊이 있게 묘사됨에 있어서 그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이트는 최초로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꿈을 분석하였다. 그는 꿈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규정하고, 꿈이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모든 꿈이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꿈은 완벽한 심리현상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의 충족이다.……꿈은 억압되고

47) 소설 속의 칸트가 쓴 『第一批判書』, 『第二批判書』, 『第三批判書』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각각 가리킨다.

48) 예를 들어 항문기에 자신의 대변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던 유아의 충동은 성장하면서 진흙이나 점토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고, 성인이 된 뒤에는 이러한 충동을 예술로 표현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과정을 이차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는 원시적인 욕구와 본능을 문화적인 동기로 대치함으로써 문화가 발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억제된 소망의 위장된 충족이다”⁴⁹⁾ 또한 프로이드는 문예작품을 백일몽에 비유하며, 꿈을 무의식 과정의 산물이자 대체물로 보았다.⁵⁰⁾

문학 창조자는 낮에 꾸는 꿈을 변형시키거나 베일로 가림으로써 자아 예찬이 주조를 이루는 꿈의 성격을 약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몽상을 통해 순수하게 형식적인, 다시 말해 미학적인 쾌락을 제공하여 독자들을 유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문학 작품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쾌락이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긴장들이 해소됨으로써 발생하는 것 같다. ⁵¹⁾

귀모뤄 역시 이러한 프로이드의 논리에 수긍하며 “문예 창작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다. 그는 「비평과 꿈(批評與夢)」에서 이러한 견해를 언급하며 꿈을 꾸는 것은 육체를 망각하고 물질세계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데, 문예 창작 역시 나를 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⁵²⁾ 그는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통해 작가의 무의식과 꿈(몽상)으로 인해 새로운 의의를 얻게 됨을 강조하며, 작가의 무의식과 꿈이 문예 창작에 미치는 작용 또한 거듭 강조하였다. 그의 또 다른 소설 속에서도 꿈과 인물의 무의식적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月蝕』에 꿈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있다.

밖으로 나가보니, 위층에서 뭔가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 들리더라.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까 위층의 난간이 백골로 변하더니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뼈 한마디 한마디가 탈골되더니 공중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야. 또 시키면 위층 귀퉁이에서는 수많은 해골들이 위 아래로 떠다니는 게 아니겠어. 깜짝 놀라 급히 뛰어 들어와 너와 아이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려는데, 뒤에서 그 많은 해골들이 쫓아 들어와 거실에 버티고 있는 거야.

49) 지그문트 프로이드, 안병욱 역, 『꿈의 해석』, 풀빛, 2006. 75쪽, 100쪽.

50)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장진 역,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6. 154쪽 참조.

51) 위의 책, 156-157쪽.

52) 「文藝論集·批評與夢」, 『郭沫若全集』 第15卷, 286쪽 참조.

그러다가 뼈들이 합체되더니 그중에서 뼈쩍 마른 해골이 우리에게……⁵³⁾

이러한 꿈에 대한 묘사는 주로 작가 자신의 불만을 발산시키기 위함이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에서 꿈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유년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구’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이 ‘사라지지 않는’ 욕망은 확실히 도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지적한다. 귀모뤄의 가족은 오랫동안 냉혹한 현실에 내몰려야 했는데 방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며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야 했다. 이러한 작가의 현실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은 꿈에서라도 실현되기를 바란 것이고, 이것은 다시 작품 속 인물의 무의식적 심리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殘春』 역시 작가 귀모뤄가 의식적으로 심리묘사에 치중한 소설로써, 꿈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심리를 파헤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귀모뤄는 주인공 아이모우의 치밀한 꿈을 계획하였다. "아이모우는 부인이 있는 사람이니 그의 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무의식 속에 묻어 둔 것이다. 이것은 꿈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⁵⁴⁾ 그리고 꿈을 빌어 염원했던 욕구를 끄집어내니 비로소 억제된 의식이 해소될 수 있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론 중 ‘자아’, ‘억제’, ‘무의식’, ‘승화’등의 이론에 있어서 귀모뤄는 긍정적인 수용을 지향하였고, 자신의 낭만주의 창작 속에서도 이에 대한 용어를 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프로이트학설에 대한 수용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낯선 이론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는 『「西廂記」藝術上的批判與其作者的性格』에서 “정신분석학과의 학자들은 성욕이 문예의 기원이라고 보거나, 이를 당연함이라 여긴다.”고 지적하며, 프로이트의 억압된 성욕을 모든 문예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가 이해하는 억압된 성욕이란 프로이드가 말하는 자연발생적이고 또 사회현실과 무관한 억압된

53) 「月蝕」, 『郭沫若全集』第9卷, 83쪽.

54) 「文藝論集·批評與夢」, 『郭沫若全集』第15卷 288쪽.

무의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억압되어 형성된 지극히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 글에서 성욕은 봉건예교의 억압 속에서 절제되고 억제된 것이어서 변질되어 병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작가에게 이러한 억압은 창조의 충동으로 작용하여 문예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 성욕의 발산에 있어서 귀모뤼는 프로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억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내용을 한층 더 고려하였다.

이상으로 귀모뤼의 창작실천과 이론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귀모뤼는 프로이드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누에에는 뽕나무 잎을 갹아먹고 명주실을 만든다. 이 명주실은 식물의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뽕나무의 원래 잎은 아닌 것이다.”⁵⁵⁾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모뤼의 프로이드 학설에 대한 가장 큰 의의는 그가 성욕을 묘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억압’된 정서를 ‘승화’로 표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인물의 무의식 심리에 대한 묘사는 심리분석 문학을 낭만주의 문학의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렸다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Ⅲ. 나오는 글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혁명적인 업적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보다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내면에는 ‘자아’라는 단단하고 확고한 실체 대신 차마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있다는 사실을 프로이드는 처음으로 간파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시야를 더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업적은 다윈과 아인슈타인이 가져온 사상적 혁명에 비견할 만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이론에서 성(性)에 대한 언급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물론 그 이전의 정신의학자 중에서도 성(性)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

55) 「文藝論集·文藝的生產過程」, 위의 책, 218쪽.

은 프로이드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성(性)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프로이드의 사상이 초기에 냉대를 받은 원인이기 하였으며, 프로이드가 인간의 제반적인 심리현상을 성욕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요인이기도 하였다. 물론 프로이드는 성(性)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는 않았고, 그것이 당시의 통념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처음으로 직시했을 뿐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모든 인간, 어린 아이까지 성적자극, 성적욕구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로만 파악하는 한계점을 가졌으며 여성의 열등감 등에 대한 편견에 대한 비판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대인 관계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가해한 대상으로 남아있는 인간의 무의식이란 대상을 향한 프로이드의 통찰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프로이드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해석, 그리고 재비판과 재해석이야말로 어쩌면 그의 이론이 지닌 탁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선과 귀모뤄는 중국 신문학의 리얼리즘과 낭만주의 문학사조의 대표 작가로 당시 다른 서방 사조들과 함께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문예이론과 창작에서 이를 널리 소개하고 또 실천하였다. 루선과 귀모뤄 이 두 작가는 공교롭게도 일본 유학시절 의학을 공부하였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의학을 공부하였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정신분석이론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루선은 철저한 리얼리즘 문학정신에 입각하여 프로이드가 밝혀낸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였고, 귀모뤄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낭만주의적 문학 시각에 맞춰 인간의 내면심리를 잘 묘사해냈다. 이 두 작가는 전혀 다른 문학사조 선상에 서 있는 듯하지만, 낡은 중국사회를 계몽하고 봉건의식으로부터 민중을 일깨우고자 하는 5.4시기 작가의 사회적 사명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의 발견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각자 자신의 창작 속에서 여러 심리형태로 표출

되는 인간의 무의식을 묘사함에 있어서, 변태적이고도 기형적인 심리형태로, 꿈의 형태로, 히스테리 형태로, 혹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선택된 ‘승화’의 형태로 각자 표출된 억압된 인간의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루쉰과 귀모뤄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여타의 비판적 시각과 다르지 않게, 억압된 성본능으로부터 야기된 인간의 기형적인 내면심리가 특정한 사회조건을 벗어난 범성욕주의로부터 출발한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일정부분 한계점으로 지적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루쉰은 철저한 리얼리즘 문학정신에 기초하여 정신분석이론을 비판하였고, 귀모뤄는 ‘예술을 위한 예술’에 기초를 둔 낭만주의를 주요 문학 정신으로 삼았지만, 문학의 사회성을 고려해야 하는 신문학 작가로서의 사명을 담아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의 편파성을 부정하였다.

루쉰과 귀모뤄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문학사조를 근간으로 문학의 사회성과 예술성을 주장하였지만, 인간의 잠재된 무의식을 표출시키고 묘사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심리분석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마치 陳思和가 중국 신문학 발전과 계몽전통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20세기 중국 문학의 이해』를 가리킨다) 20세기 문학과 문학운동을 계몽의 문학과 문학의 계몽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20세기 문학의 주요한 논쟁 중의 하나였던 인생을 위한 예술과 예술을 위한 예술 간의 충돌이 사실은 어떤 양립불가능한 문예관의 대립이 아니라, 병존하는 한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결국 서로 통일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⁵⁶⁾

위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쉰과 귀모뤄 역시 당시 신문학 작가에게 요구된 사회적 사명을 계몽의식에 담아낸 것은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의 경계를

56) 강경구, 「『20세기 중국 문학의 이해』서평」, 청년사, 1995, 391쪽. 『20세기 중국 문학의 이해』는 상해 복단대학의 교수 陳思和의 저서 『中國新文學整體觀』(상해출판사, 1987)을 한국외대중국현대문학연구회가 번역한 책이다.

넘어서 계몽문학과 문학계몽을 적절히 융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4시기 루쉰과 귀모뤄를 비롯한 중국 신문학 작가들이 받아들인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은 낡은 봉건사회를 계몽시키고 인간의 내면심리를 정확히 읽고자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신문학 작가들은 때로는 긍정적인 수용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 지적으로 정신분석이론을 수용하였으며, 이는 5.4시기 계몽문학과 심리분석소설을 한층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 김성태 역, 삼성출판사, 1990.
 _____, 『정신분석의 탄생』, 임진수 역, 열린책들, 2005.
 _____,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09.
 _____, 『꿈의 해석』, 안병웅 역, 풀빛, 2009.
- 곽말약, 『곽말약 자서전 4(홍파곡)』, 박정일 외 역,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마가렛 마켄하우프트, 『정신분석과 프로이트』, 김문영 역, 바다출판사, 2002.
 염영옥, 『노신의 문화사상과 외국문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이육연, 『곽말약과 중국의 근대』, 소나무, 2009.
 이토 세이 외, 『일본 私小説의 이해』, 유은경 역, 소화, 1997.
 전형준, 『현대중국의 리얼리즘』, 창작과비평사, 1997.
 중국문화연구회, 『중국문화의 즐거움』, 차이나하우스, 2009.
 켈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안귀여루 역, 범우사, 2008.
 피에르 바뵁, 『프로이트』, 이재형 역, 시공사, 1995.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魯迅全集』 第2卷, 인민문학출판사, 1991.
 『郭沫若全集』, 人民文學出版社, 1992.
 張良叢, 「試論弗洛伊德思想在中國現代文學界的傳播與接受」, 『文藝評論』, 2008년, 제5기.

❖ ABSTRACT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Freudian psychoanalysis
- Focusing acceptance of the Freud's theory psychoanalysis on Lu xun and
Guo Mo ruo

Ko, hae-kyung

Freud's'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is a great revolution. Because of this, human beings were able to get the opportunity to look into their inner than honest. Lu Xun and Guo Mo Ruo a pair of realism and romanticism literature representative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writers. They then absorb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Freud along with other Western zeitgeist, introduce them widely in literary theory and creative practice, which was again. Lu Xun was reflected in the human world of the unconscious Freud uncovered on the basis of strict realism literary spirit, Guo Mo Ruo is in accordance with the romantic literary time for the purpose of 'art for art' depicting a man's inner psychological well did. Although Freud spirit they claim to social and literary artistry of literature based on different yarns in the Acceptance of analytical theo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on sentiment analysis method to express and describe the unconscious human potential.

5.4 When Lu Xun and Guo Mo Ruo China Journalism writers, including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has embraced the Enlightenment and the old feudal society was a major contribution to want to read exactly what the human inner hearing. Chinese modern literature writers have to accept sometimes positive, sometimes accepting the psychoanalytic theory was intellectually sharp criticism, which could be a great instrument in time to the 5.4 Enlightenment and psychological fiction novel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魯迅, 郭沫若,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심리소설, 중국 신문학

Lu Xun, Guo Mo Ruo, Freudian psychoanalysis, psychological fiction, modern Chinese literature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6일